

2012년 전국 16개 시도 문화행사 분석 '문예연감' 살펴보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펴낸 2013 문예연감에 따르면 전남은 여수엑스포의 영향으로 국악 등 공연 건수가 대폭 늘었다. 사진은 여수엑스포 공연 모습.

광주, 공연 많았지만 대부분 단발 무대 '아쉬움'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문화활동의 지형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2012년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 문화활동 실적을 담은 '2013 문예연감'을 펴냈다.

광주의 경우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성적표가 그리 좋지 않다. 지역별 통계가 가능한 5개 분야 가운데 전시 부문과 무용을 제외하고 국악, 양악(클래식), 연극 3개 부문의 공연 건수가 모두 감소했다.

특히 국악, 연극 등의 경우 공연 건수에서는 타 지역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공연 횟수면에서는 하위권을 기록, 대부분의 공연이 1~2회 단발 무대로 끝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은 대형 문화 행사인 여수 엑스포의 영향으로 전시를 제외한 각 부문의 공연 건수가 대폭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올해 역시 순천정원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발적인 대형 행사로 인한 건수 상승은 지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국악 분야에서는 전남의 약진이 돋보였다. 전남은 최근 5년 동안 서울을 제외한 도시중 공연 건수에서 항상 1위 자리를 놓지 않았던 전북을 처음으로 눌렀다. 전남의 전체 공연 건수는 226건(지난해 163건)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공연 횟수면

광 주

국악·양악·연극 분야 활동 저조

미술, 비엔날레 영향 소폭 상승

전 남

10만명당 국악 횟수 전국 최고

여수엑스포 영향 각 부문 약진

에서는 275회로 경기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10만명 당 공연 건수는 11.83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소리의 분향'임을 주창하는 광주의 경우 국악 분야 활동은 저조했다. 올해 공연 건수는 90회로 전국 7위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120건에 비해 30건이나 줄어든 수치다. 횟수면에서는 105회로 10위에 머물렀다. 인구 10만명당 건수는 6.13으로 4위였다.

양악 부문의 경우 역시 전남이 강세였다. 지난해 138회에서 올해 211회로 공연 횟수가 대폭 늘어났다. 광주는 215회에서 208회로 소폭 하락했다. 전체 순위는 9위, 10만명당 공연 건수는 14.

16으로 8위였다. 23.64로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제주의 결과가 눈에 띈다.

연극의 경우 광주에서는 모두 111건이 무대에 올랐으며 공연 횟수는 모두 337회였다. 공연 건수로는 7위지만 횟수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10만명당 공연횟수 역시 16개 시도 중 14위, 건수는 7위를 나타냈다. 이는 소극장 장기 공연 등을 진행하는 타 지역과 달리 광주가 단발성 공연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각 극단이 역량을 동원해 제작한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관객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전남은 연극 부문 역시 올해 206건으로 지난해 135건에 비해 70여건이 늘어났으며 공연 횟수도 466회로 대폭 늘었다.

'무향'(舞鄕) 광주의 위상이 높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활동량은 조금 아쉽다. 무용은 광주의 경우 모두 35건, 48회 무대에 올랐다. 지난해에 비해 10건 정도 늘기는 했지만 인구 10만명당 공연 건수에서는 9위에 머물고 있다.

시각 분야(미술)의 경우 전체적으로 건수가 줄어든 데 비해 광주는 비엔날레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열린 전시 건수는 597건이었으며 이중 개인전은 214건이었다. 하지만 대구의 833건, 대전의 690건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향기 가득'

悠悠自適적

이영실 개인전

15일까지 서울갤러리 GMA

화려하고 로맨틱하기 그지없다. 화폭 안에 펼쳐지는 꽃과 나무에서는 아름다움을 넘어 생명에 대한 기운과 희망이 느껴진다.

서양화가 이영실씨가 1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서울 갤러리GMA에서 '유유자적'(悠悠自適)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계절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나무와 꽃의 에너지를 오일과 천 등 혼합재료를 이용해 선보인다. 둥글둥글한 꽃과 굵고 단순한 형태의 나무는 소박한 형식미를 보여주지만 캔버스 안에서 어울리면서 풀어내는 기운에서는 유유자적인 삶을 꿈꾸는 작가의 희망과 생에 대한 찬미가 느껴진다. 오일 위에 천을 덧대 현실에 대한 일탈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이씨는 광주사생회, 전우회, 한울회회원으로서 활동 중이다. 문의 02-725-0040. /김경인기자 kki@

광주미술관회 청년작가 초대전 15일까지 은암미술관



홍원철 작 'Machine civilization into poodle'

(사)광주미술관회(회장 김용서)에서 주최하는 '2013 청년작가 기획초대'전이 15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열린다.

올해 6회째를 맞는 광주미술관회 청년작가 기획초대전에는 고마음, 김동아, 김성수, 박세희, 백종휘, 범소연, 성유진, 성혜림, 신호윤, 양나희, 양재영, 장진수, 홍원철씨 등 모두 13명이 초대됐다.

신호윤씨는 종이를 재료로 한 입체작품을 선보이고, 홍원철씨는 혼합소재를 사용하여 현대의 불안한 사회와 인간의 모습을 회화화한 작품을 전시한다.

한층 발전 된 형태의 현대 한국화를 선보이는 성유진씨, 골판지의 두꺼운 재질감으로 부조 형식의 입체감 있는 풍경화를 선보이는 양나희씨의 작품도 돋보인다. 문의 062-231-5299. /김경인기자 kki@

광주아버지합창단, 12일 고통정보산업학교서 위문공연

광주아버지합창단(단장 박경식)이 12일 고통정보산업학교에서 위문 공연을 한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고통정보산업학교에서 열리는 3번째 위문 공연이다.

이날 광주아버지합창단 윤원중씨의 지휘와 문선은, 김정은씨의 반주로 '도나 노비스빠렘' '외갓길' '향수' '오늘밤에 사자가 자고 있네' 등 가곡과 '무조건' '우리들은 미남이다' '마징카Z' 등의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 스포트라노 박수연씨가 '아여쁜 내 얼굴' 등 2곡을

들려주고, 광주아버지합창단 내 중창단인 '파파양상블'과 남부대 실용음악과의 공연, 송영일씨의 시낭송도 준비돼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들로 구성된 광주아버지합창단은 지난 16년 동안 정기연주회와 각종 자선음악회 등을 통해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해 왔다.

한편 광주아버지합창단은 다음달 9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8회 정기공연을 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업 31주년 K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총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다음달
28일까지

50% POWER SALE

NAVER

홍스페이스

지하 2층~5층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